

책, 세상을 경영하다



심 상 훈
북칼럼니스트
브랜드매니지먼트HNC 대표

누 구나 승리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현실은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들소(버팔로)처럼 무조건 선두 기업을 쫓아 앞으로 달려가려고 한다. 이게 문제다. CEO로서 하루 경영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가. 혹시 어제와 비슷하게 보고 오늘도 비슷하게 행동하는 스케줄로 분주한 하루를 보내지는 않는가. 이때문에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단 한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천만다행이다. 불치병이 아니고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거기로 시장을 비슷하게 보고 비슷하게 행동하는 기업이 승리하는 법은 결코 없다. 남(경쟁자) 이상이 되고 싶다면 경쟁자와 다른 생각, 변화, 경영의 삼박자를 잘 갖춰 하루하루 기업은 전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두를 쫓으려는 기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칭 인디언사냥꾼의 꾀에 넘어가 절벽에 떨어져 죽는 들소의 운명과 흡사한 ‘버팔로 기업’으로 비꼬는 게 다.

상식 밖의 길과 독서

버팔로 기업은 하나같이 예전의 지도로 신대륙을 찾으려고 할 안이다. 예전의 지도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그것은 ‘상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상식을 아무리 뒤집어 본들 ‘식상’ 이상은 없는 것이다. 그런 거다. 新시장(new market), 즉 신대륙이나 블루오션은 지도 밖에 어딘가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 상식 밖에 위치해 있다. 그리하여 예전의 지도를 보고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상식에 기대서는 나타나지 않는 시장이니 우리가 그것을 신대륙이라 부르고 블루오션이라고 빗대서 말하는 게 다.

상식이란 무엇인가. 자기 지식이 남과 다를 바 없고 거기서 거기로 엇비슷하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남이 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될 수 없다. 아시아 최고 재벌인 홍콩의 청쿵그룹 CEO인 리카싱(李嘉誠)은 ‘취침전 30분 독서의 힘’을 수많은 후배 경영자들에게 널리 권장한 바 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자신과 기업이 어디에서 있는지, 또 미래의 사업을 어떻게

펼치고 꾸려나가야 할지 두렵고 궁금할 때마다 책을 통해 자신의 상식을 허물고 상식 밖으로 길을 찾았다고 한다. 즉, 생각이 깊어져야 변화가 일어나고 경영에 탄력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어 성공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예전의 지도가 아닌 새로운 지도를 그려가기 위해서 ‘독서의 힘’을 강조한 것이리라.

생각 · 변화 · 경영

승리하는 기업은 최고 경영자(CEO)의 역할과 능력, 그리고 운(運) 등에 달려 있다. 운이 없다는 것은 예전의 지도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상식적인 사장이라는 얘기 와 해당 다를 바 없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시어도어 레빗 하버드 대학교 교수는 사장의 역할을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생각, 변화, 경영이 그것이다. 여기서 세 가지, 즉 숫자 3의 비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측하건대 시어도어 레빗은 올바른 사장의 역할론으로 삼각을 형성하는 허브(軸)으로 생각, 변화, 경영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三位一體)라는 사실을 책 『경영에 관한 마지막 충고』로 알리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오토 베헤츠(Otto Betz)는 『숫자의 비밀』(다시)에서 매혹적인 숫자의 비밀을 풀면서 “1은 모든 숫자의 출발점이자, 모든 존재의 근원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숫자 2는 ‘상생이면서 독립적인 수’로, 다양성은 하나가 두 개로 나누어짐으로써 시작된다고 숫자의 비밀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렇다면 숫자 3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숫자로 3은 ‘삼위일체 조화의 수’하면서 “3은 완전한 숫자다 라는 뜻이라고 한 것 같 조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나 기독교와 같은 종교가 왜 3이란 숫자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다시 시어도어 레빗의 충고로 돌아가자. 사장은 ‘생각’이 그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절로 깨우치게 된다. ‘변화’는 생각과 상생이면서 독립적인 축이고 또 생각이나 나누어짐으로써 변화가 이루어지는 수순을 어렵지 않게 감(感) 잡을 수 있다.

따라서 ‘경영’은 그 시작과 변화, 그리고 완성이 모두 생각에서 근원되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생각은 리카싱 회

장이 지적했듯 책을 통해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할수있다.

시어도어레빗은이렇게경영이란무엇인지간단히정리한다. “ 경영이란어제를되돌아보며해야하는무언가가아니라, 내일을내다보며해야하는무언가이다 라고말이다. 말하자면경영자가독서해야하는이유는어제를알고자해서가아니다. 바로내일을내다보기위해서다.

생각하는 습관, 긍정적인생각

한마디로 책은 당신의 생각의 지도를 넓혀주는 데 탁월하다. 그렇기때문에모르던것을알게만들고지도밖의길로독서하는순간, 지금(present) 바로안내한다. 지금은세상에서가장비싼 황금이기에 다른 말로 선물(present)이라고 말하는 것일 터. 그런거다.

미국의석유왕존록펠러를기억할것이다. 그는기자가묻는 질문에경영을이렇게설명한적있다. “ 경영이란보통사람들을 최고로능력있는사람들처럼일하게만드는것이다 라고. 정말죽이는명언이다.

그래서그랬는가. 승리하는기업이든히든챔피언, 아니면해당 분야의 선두 기업은 한사코 ‘ 독서 경영 을 비즈니스 현장에 도입하길망설이거나 주저하지않는 것이다. 무심코펼쳐든책. 그속에서찰나에영킨실타래를풀수있는절호의생각, 변화, 경영을 발견할수 있다고 필자는《책, 세상을경영하다》에서강조해말한바있다. 그렇기때문에예전의지도로는신대륙과블루오션을발견할수없다고주장하는거다.

소설가 한승원은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말한 적 있다. “ 어느 한 어둠 속에 나를 묻어두는 것도 나이고, 거기에서 나를 꺼내 빛 속으로 나아가게하는 것도 나이다 라고. 이 얼마나 멋진 명언인가.

그렇다. 비슷하게 보고 비슷하게 행동하면 생존하기 어렵다. 하루아침에들소기업으로전락한다. 아무생각없이선두기업을쫓다가는망한다. 벼랑끝으로떨어질수밖에.

기업과마찬가지로성공하는사람들에게는흔히두가지특징이 있다. 한 가지는 생각하는 습관이다. 이는 독서를 통해 가질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메모하는 습관이다. 이는 독서를 찹찹이 하는순간떠오르는영감, 아이디어를찰나에놓치지않으려는좋은습관이다.

책은긍정적인생각을키운다. 또책은생각밖의지도가존재하는걸가르쳐준다. 따라서예전의지도와상식에갇히는패자의우(愚)를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만든다.

병아리가깨어날때알이절로깨지는게아니란다. 알이껍테

기를 깨부수려고 스스로 안간힘을 쓸 때 비로소 어미닭이 바깥에서 이를 보고 도와주고자 쪼아준다는 의미에서 ‘ 줄탁동시 란 한자말이었다. 이는사람과기업도마찬가지다. 변화하고자힘쓸때누군가밖에서나(我)를기다리고도와주려하는것이지가 만히상식대로행동하는데누군가깨우치거나도와주려하진않는다.

좋은 책은 감동을 동반한다

신대륙과블루오션은무엇인가. 그것은상식이라는예전의지도에는그려져있지않다. 하지만상식밖으로나오면지도의그림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해서 상식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세상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책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늦었을 때가 시작이라는 얘기도 항간에는있지않던가. 왜? 책을읽느냐고묻거든이렇게답하자.

현재와 과거 때문이아니라 미래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라고. 그렇다. 미래는전반생이아니라후반생이절호의기회다. 그것을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다. 다양성과 폭넓은 사고를 통해변화를예측하고기회를창출해승리하는기업으로향해하고자해서다.

그러므로좋은책은꼭마음으로기억하려애쓸필요가있다. 이왕이면책목록을따로메모해두면금상첨화다. 좋은책은단지재미만추구하진않는다. 반드시감동을동반한다. 그뿐인가. 생각을 키우고, 변화를 일으킨다. 이를테면 베스트셀러는아니지만『내인생이가장값비싼MIT MBA 강의노트』(원앤원북스)가그중대표적으로하나이다.

책 속에는 이른바 알파벳 P로시작되는 세 개의 영어 단어가 나온다. put, people, profit이그것이다. 문장으로 연결하면 이렇다. ‘ Put people above profit. ’

요컨대 ‘ 사람을이익보다 위에놓으라 는메시지다. 고故 피터드러커박사는“ 수익이생존원가다 라는아주기막힌존철살인의명언을남긴바있다. 하지만인재가없는수익은지켜지지 않는다. 다행히 『넋지』(리더스북)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넋지란 본래사전적의미로 ‘ 팔꿈치로슬쩍찌르다 라는의미인데책에서는 ‘ 타인의선택을유도하는부드러운개입 을일컫는다. 말하자면부정적이고강압적인방법대신긍정적이고자연스럽게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개인 혹은 집단의 행동을 설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이끌어내는것을의미한다. 이렇듯여러분은3시간혹은3일만투자하면작가가몇년을공들이며집필에투자한시간을여러분의것으로만들수있다. 이래서책이란나의경영으로참좋은거다. 그런거다. CJ